

指示의 力學的 組織에 관하여

— 助詞와 尊待法을 中心으로 —

朴 亨 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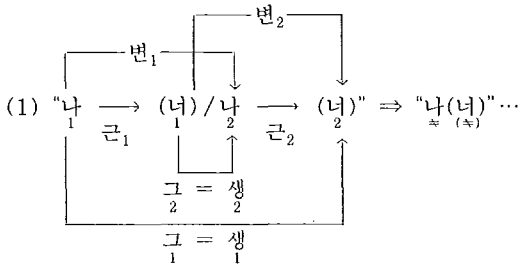
(언어학과 교수)

본 연구는 다음의 세가지 목표를 갖는다:

‘첫째로’: 言語活動 즉 ‘말의 순환’을 ‘指示→被指示의 조직’으로 파악할 때 이 ‘物理적 사실’을 단순히 ‘指示 (화자: <나>) → 被指示 (청자: <너>)’의 ‘表面적·無限한 순환의 반복’으로서가 아니라 즉, 實物로서의 <나>를 중심으로 하여 <너> 및 <그>를 人爲적으로 派生시키는 ‘實物적·物理적·派生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 즉 ‘實物적·派生적·非力學적 人稱의 조직’으로서가 아니라,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‘너(指示: <疑問하는> 화자) → 나(被指示: <대답하는> 청자)의 深層적·有限한 순환의 조직’ 즉 ‘의문<너> → 대답<나>’의 ‘自然적 순서’에서 ‘첫째로’: ‘근원적·屈折적(= 일반적) <₁너>’가 그에 대응하는 ‘변형적·<₂너>적 <나>’를 ‘흡수’하는 <너>와 <나>의 ‘₁근원적 짝’과 그에 이어서 ‘둘째로’: *위 ‘첫째의 짝’의 ‘₂근원적 = 변형적 짝’ 즉 ‘첫째’의 <나> 및 <너>가 각각 ‘근원’ 및 ‘변형’이 되어 위 ‘첫째’와 같이 그러나 그와는 逆으로 ‘근원(= <₂너>적 <나>) → 변형(= <₂나>적 <너>)’이라는 ‘짝’이 위 ‘첫째의 짝’과 ‘짝’을 이루고, ‘셋째로’: *위 ‘첫째’와 ‘둘째’ 각각의 ‘內部적 흡수’의 ‘결과’가 이루는 外部적 ‘짝’ 즉 ‘生成적 짝’으로 끝나는 ‘內部和 外部의 짝의 조직’으로서의 ‘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 즉 ‘深層-, 精神-, 一般(屈折)-, 力學적 人稱의 조직’으로서 파악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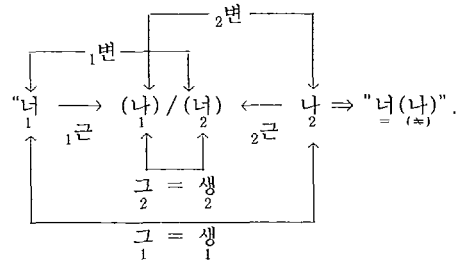
그림으로 표시하면 (*주의 “= / ≠” 표시는 “형태/의미”를, 화살(숫자)표시 “→ → / → ← (左/右의 1, 2)”는 “非力學적 等方向/力學적 逆方向”을 각각 구별 표시함):

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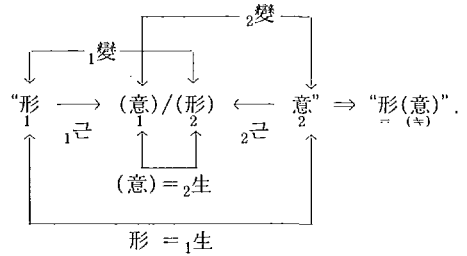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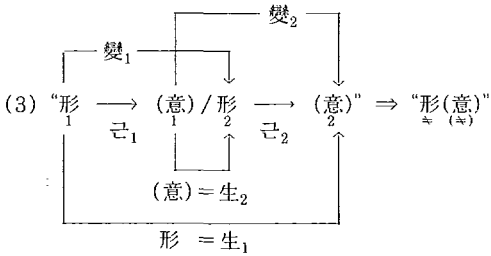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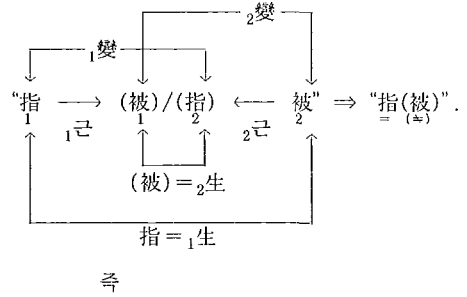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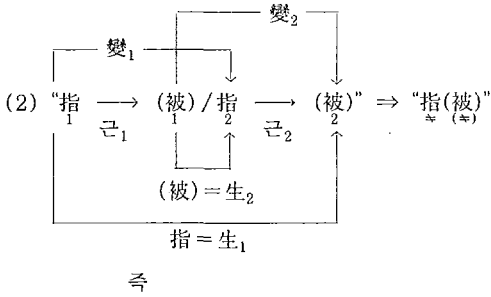


즉

“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



즉



‘둘째로’: *위 ‘첫째의 指示 = 형태 → 被指示 = 의미의 조직’ 즉 非力學적 관점에서 ‘助詞’ 및 ‘尊待法’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따로 파악하는 ‘형태’ = 指示<助詞>와 ‘의미’ = 被指示<존대>를 力學적 관점의 “指示 → 被指示 의 조직”으로 환원시켜서 그 ‘조직’ 전반을 설명하는데 사용한다. 이것은 곧 非力學적 관점에서의 “實物적 人稱” 즉 ‘(格적/強調적) 主語(이, 가)/目的語(을, 를)/特殊助詞(도, 는, 만),’와 ‘主 = 主體(-시)/目 = 客體(-습)/動 = 相對·極尊待(-습니)’를, ‘첫째로’: ‘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을 ‘간접적으로 뒷받침’ <支持>하는데 ‘직접한 物理적 사실’로서 파악하고, ‘둘째로’: 그 물리적 사실을 탈피하여 ‘力學적 조직’을 再構함을 말한다. 달리 말하면 이 ‘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은 ‘非力學적 조직’을 ‘제거/배제’하는 힘을 그 자체안에 스스로 지니고 있는 ‘統一화된 (人稱의) 조직’ 내지 ‘統一화된 근원적 理論’임을 뜻한다.

‘셋째로’: 위 ‘둘째’의 당연한 귀결로서 力學적-/非力學적 취급을 받는 共通基로서의 “助詞 → 尊待法”을 ‘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으로 파악함은 두 相反되는 조직의 比較를 뜻하게 된다. 즉 外觀상으로는 움직이는 듯하나 事實상으로는 안 움직이는, 實物로서의 人間 = 意味 중심의 意圖·選擇을 恣意적·人爲적으로 설정하여 그것으로부터 言語 = 形態를 설명하는, 다시 말해서 物質(被指示 = 意味)의 테두리 안에서 物質(= 被指示 = 意味)을 物質(= 被指示 중심의 指示 = 意味)로 分析하는 ‘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과, 外觀상으로는 추상적·비 구체적이어서 안 움직이는 듯하나 事實상으로는 ‘먼저’ 순서로서의 ‘指示(= 형태)’가 選擇·意圖의 主體로서 ‘나중’ 순서로서의 被指示(= 의미)와 ‘짝’을 이루고 있는, 精神(= 指示 = 형태)의 테두리 안에서 物質(= 被指示 = 의미)

을 精神(= 指示 = 형태)으로 分析하는, 따라서 이때 “物質”은 精神적 성격을 띄게 되는, ‘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’을 비교하는 것, 즉 후자가 전자를 ‘제거/배제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뜻하게 된다.

○ 力學적 “指示 → 被指示”의 짝을 간접적으로 支持하는 “적절한 언어적(= 물리적)사실”: — 助詞와 尊待法.

*위 “둘째”에서 지적한 非力學적 관점에서의 “指示 = 형태 → 被指示 = 의미”의 조직 즉 ‘형태’로서의“(格적/強調적) 主語(이, 가)/目的語(을, 를)/特殊助詞(도, 는, 만)”와 ‘의미’로서의 “主 = 主體(-시)/目 = 客體(-습)/動 = 相對·極尊待(-습니)尊待法”을 그 意味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:

○ 助詞 = 형태

- | | |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零形 | { | 모든 “動” 앞의 “目”에
“Ø”이 붙음:
“主-目-Ø-全動~” |
| 2 이/가 | { | (否定적) 指定詞(아니다)에 붙음:
“主-目-이-아니~”
主觀動詞(좋/싫)의 바로 앞
요소(= “目”에 해당 하는
위치)에 붙음:
“主-目-이/가 좋/싫~” |
| 3 을/를 | { | 主觀引用動詞(= 記述동사)
(-아/어하~)의 “目” 요소에
붙음: “主-目-을/를 좋/싫
아/어하~”
行爲(= 目的)動詞의 “目”
에 붙음: “主-目-을/를 먹~” |
| 4 도/는/만 | { | 모든 “동”의 “목”에 붙음:
“主-目-도, 는, 만-全動~” |

○ 尊待法 = 의미

- | | |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零形 | { | 반말 = 尊待 零(Ø):
屈折(= 終止)語尾(아/어)를 “動(形)”
에 붙임: “主-動(形)-아/어” |
| 2 시 | { | (主觀적) 指定詞(이다)에 붙음:
“主-目-이-시~”
(記述的) 存在詞(있다)에 붙음:
“主-目-있-시~” |
| 3 습 | { | (記述적) 與格(에게) “動”
에 붙음: “主-目(에게)-動
-습~”
(行爲적) 目格(을) “動”에
붙음: “主-目(을)-動·습~” |
| 4 니 | { | 모든 “동”에 붙음:
“主-目-全動-니~” |

이것을 다시 *앞 “첫째”의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의 그림에 따라 “형태 → 의미”의 ‘짝’으로 배열하되 ‘형태 = 格’, ‘의미 = 強調(된 格)’와 같이 명칭을 바꾸고 앞에서 사용한 “主觀/記述/行爲”를 아울러 사용하여 정리·배열하면 아래와 같다:

○助詞 = 형태 = 格

- 1 零形 { (*다음 "이(가)"의 앞 단계로
서의) 形 = 超형태/-격/-주관
(*다음 "이(가)"의 앞 단계로
서의) 意 = 超의미/-강조/-기술
- 2 이/가 { ("이/가"가 꼭 "目"에 붙는다는
義務性으로서의)
形 = 격 = 주관
(이때 감지되는 "강조적 의미"로서의)
意 = 강조 = 기술
- 3 零形 { (*다음 "을/를"의 앞 단계로서의)
形 = *위 零(∅)形과 같음
(*다음 "을/를"의 앞단계로서의)
意 = *위와 같음
- 4 을/를 { 形 = 격 = 기술(~을 "좋/싫어
하~")
意 = 강조 = 행위("~을 먹~")
- 5 도/는/만 { (모든 "動"의 "目"에 붙는다는
의미에서의)
形 = 極격 = -행위₁
(“形”에 대응되는 “意”로서의
意 = 極강조 = -행위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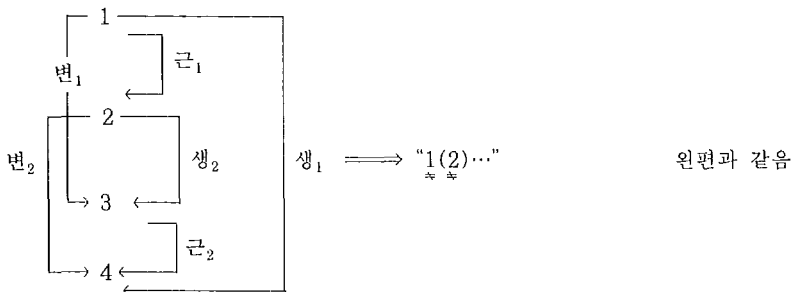
○尊待法 = 의미 = 強調

- 1 零形 { (*다음 "시"의 앞 단계
로서의) 形 = 左 " 同
(上 " 同)
意 = 左 " 同
- 2 시 { 形 = 左 " 同
意 = 左 " 同
- 3 零形 { 形 = 左 " 同
意 = 左 " 同
- 4 습 { 形 = 左 " 同
意 = 左 " 同
- 5 니 { 形 = 左 " 同
意 = 左 " 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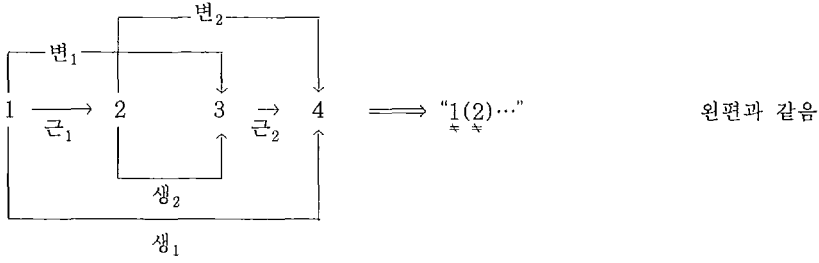
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숫자(1, 2, 3, 4)로써 위 '助詞'와 '존대'의 "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"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(*위쪽 그림을 위의 "정리"를 그대로 세로로 표기한 것이고 아래쪽 그림은 그 "표기"를 가로로 다시 고친 것이다):

○助詞 = 형태 = 格

○尊待法 = 의미 = 強調



옆으로 표기하면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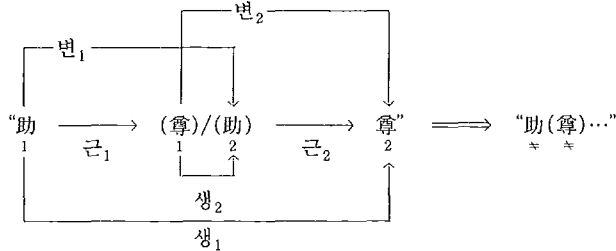


*설명: “助詞 1 = ∅ 형”과 “존대 1 = ∅ 형”은 각각 그와 직결된 ‘짝’ “2” 즉 “-이/-가” 및 “-시”와 ‘일차적’ 즉 ‘근원₁적’ ‘派生(잠재) → 被派生(실현)’이라는 ‘의미적 연결’을 이룬다. 이어서 “助詞 3 = 零(∅)形”과 “존대 3 = 零(∅)形”은 각각 그와 직결된 ‘짝’ “4” 즉 “-을/-를” 및 “-습”과 ‘이차적’ 즉 ‘근원₂적’ ‘派生(잠재) → 被派生(실현)’이라는 역시 ‘의미적 연결’을 이룬다. 즉 다시 말하면 “근원₁” 및 “근원₂”에서의 “零(∅)形”은 결국 같은 ‘派生者’ 즉 實物적 잠재체로서, ‘일차(근원₁)적’으로는 “-이/-가”(助詞의 경우) 및 “-시”(존대의 경우)를, “이차(근원₂)적”으로는 각각 “-을/-를” 및 “-습”을 派生(실현)시키고 있는 셈이다. 그런데 그렇게 사실대로 보지 않고 ‘첫째로’ “형태”와 ‘의미’의 ‘짝’이 ‘일차’/‘이차’로 나뉘고, ‘둘째로’: ‘일차’의 派生者 零(∅)形과 ‘이차’의 그것 사이에서의 ‘변형₁’적 (의미적) ‘차이’와 ‘일차’의 被派生(실현) “-이/-가” 및 “-시”와 ‘이차’의 그것 즉 “-을/-를” 및 “-습” 사이의 ‘변형₂’적 (의미적) ‘차이’를 거쳐서 ‘끝으로’: 위 “첫째”의 ‘근원₁/근원₂’와 ‘둘째’의 ‘변형₁/변형₂’의 ‘外部적 결과’로서 ‘구체적 實物’로서의 ‘外部적 被派生者’ 즉 ‘첫째로’: 위 “일차적 근원₁”의 ‘출발항’과 “이차적 근원₂” 즉 ‘도착항’의 ‘결합’ 즉 ‘外部적/實物적 출발항’으로서의 ‘生成₁’과 ‘둘째로’: 역시 위 “일차적 근원₁”의, 이번에는 ‘도착항’과 역시 위 “이차적 근원₂” 즉 ‘도착항’의, 이번에는 ‘출발항’과의 ‘결합’ 즉 ‘外部₂적/實物₂적 도착항’으로서의 ‘生成₂’의 ‘결합’ 즉 ‘生成₁ → 生成₂’가 생성된다고 ‘강하게 主張’하는 것을 그 특징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의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이라고 할 수 있다. 즉 사실상으로는 같은 ‘實物 = 物質 = 意味 = 零(∅)’ 및 ‘(도, 는, 만)과 (-니)’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역시 같은 ‘實物 = 物質 = 意味적 형태 = (-이/-가; -을/-를) 및 (-시/-습)’으로 分析하고 있으면서, 그것을 認定하지 않고 “형태 = 위에서 말한 實物/物質 = 零(∅)形 및 (도, 는, 만)과 (-니)”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역시 “형태 = 위의 實物/物質/意味적 형태 = (-이/-가; 을/를) 및 (-시/-습)”으로 分析하고 있는 것으로 ‘오인/착각’하고 ‘형태적 분석’이라고 ‘강하게 主張’하는 즉 다시 말해서 무한대의 분석을 애초부터 전제로 하는 物質/意味의 테두리 안에서의 物質/意味적 分析이 초래하는 ‘오인/착각’과 ‘主張’의 ‘계속적/무한적/等方向적 반복’(*위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의 ‘근원₁/

근원₂, “변형₁/변형₂”, “생성₁/생성₂”는 모두 이러한 “무한 반복”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)이라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내용을 표기한 것이 위 “非力學적 조직”의 표기: “形(意)…”이다 (“_ㄴ”은 ‘의미적 차이’; “…”은 “무한 반복”을 표시).

*위의 종합결론: 위와 같은 内部조직을 가진 “助詞”와 “존대”를 묶는, 즉 그들 각각의 上位에 위치하는 ‘형태로서의 助詞’와 ‘의미로서의 존대’는 이들 각각을 ‘派生’시키는 “理論”이라고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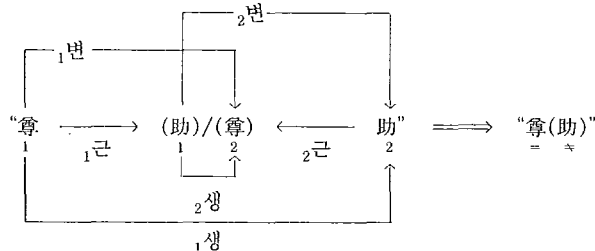
그리고 이 “理論”은 위에서 말한 뜻에서의 “오인/착각”과 “主張”의 “무한 반복”으로서의 “理論”이라고 할 수 있다. 즉 사실상 “物質 = 의미”로서의 助詞와 존대 각각의 ‘内部 조직’을 ‘하나’로 묶는 ‘형태’로서의 ‘理論’이라고 ‘오인/착각’하고 그렇게 ‘주장’하고 있는 “理論”이라고 할 수 있다. 이 “理論 = 형태”로서의 “助詞 = 형태<品詞>/“존대 = 의미<어휘>”는 역시 위와 같은 그림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(“助” = “品詞”; “尊” = 어휘; “생” = “文章”으로 代置할 수 있다):



이 그림이 표시하는 “理論 = 형태”로서의 “助詞 = 형태”/“尊待 = 의미”의 “非力學적/等方向적 짝”은 다음에서 그와 比較될 “力學적/逆方向적 짝”을 ‘간접적으로 뒷받침<支持>하는 (즉 ‘力學적 조직’을 ‘再構’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나 곧 ‘力學적 조직’의 ‘力學적 힘’에 의하여 ‘제거/배제’될 운명을 지닌) 物質적/意味적/言語적 사실’이라고 할 수 있다.

○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과 대립되는 “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”.

“力學적 조직”은 위 “非力學적 조직”과 그 외형이 같은 그림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:



*설명: *위 “非力學적 조직”의 그림과 우선 구별되는 점은 ‘첫째로’: (非力學적) “助 → 尊”의 순서가 (力學적) “尊 → 助”의 순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. 이것은 *앞 (“본 연구의 세 가지 목표”의) “그림(1)”에서 보는 바와 같이 (非力學적) “나 → 너”의 순서가 (力學적) “너 → 나”의 순서로 바뀐 것과 같은 이치이다.

즉 ‘화자’라는 ‘實物 = 意味’를 ‘형태 = 잠재’〈나〉로, 같은 ‘實物 = 意味’로서의 ‘청자’〈너〉를 ‘형태’에서 ‘派生(실현)된’ ‘구체화된 형태’ 즉 ‘意味’로 ‘오인/착각’하고 그렇게 ‘主張’하는 것과 같이, ‘화자’ 즉 ‘人間’의 ‘意圖’라는 物理(質)적 사실로서의 尊待의 태두리 안에서 ‘恣意적/表面적/意味적’으로 짝지어진 “助詞 = 형태 → 尊待 = 의미”라는 ‘순서’도 역시 위 “나 → 너”의 ‘순서’의 밑바탕에 깔린 ‘오인/착각’과 ‘주장’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그와 반대로 “너 → 나” 즉 “의문 → 대답”의 순서에 대응되는 “尊 → 助” 즉 “屈折 = 終止語尾 → 派生 = (代)名詞적 接(後置)辭”의 순서는 자연스러운 ‘말의 순환’에서의 ‘一般 = 형태 → 特殊 = 의미’라는 근원적인 ‘먼저 → 나중’의 순서이다. 言語에 따라서는 이 ‘근원적 먼저 → 나중의 순서’를 英·佛·獨語와 같이 ‘먼저’ 순서와 ‘나중’ 순서를 각각 專擔하는 ‘형태’가 없이 같은 대명사 ‘나 I/너 you’를 이용하여 “너 you → 나 I”로 ‘짝’을 짓는 言語가 있는가 하면 韓語, 바스크어, 래틴어, 日語등과 같이 ‘먼저 = 일반’의 순서를 전담하는 ‘屈折 = 終止語尾’와 ‘나중 = 특수’의 순서를 담당하는 代名詞를 구분하여 ‘먼저 → 나중’의 ‘짝’을 짓는 言語가 있다. 이것이 바로 屈折 = 終止語尾를 필두로 하여 표시되는 ‘존대’를 ‘먼저 순서’로, 派生 = (代)名詞적 接(後置)辭로 표시되는 ‘助詞’를 ‘나중 순서’로 하여 “尊 → 助”의 ‘근원적인 짝’을 짓는 이유이다.

‘둘째로’: “尊₁ → (助)₁ / (尊)₂ ← 助₂”에서 “₁근(원)”과 “₂근(원)”의 각각의 ‘짝’을 연결하는 화살표시의 방향과 그 짝의 내용에 대해서: 우선 左(₁근)의 짝: “尊₁ → (助)₁”에서 ‘₁근원향’ 즉 ‘형태’로서의 “尊”은 ‘₁변형향’ 즉 ‘₁의미’로서의 (助)를 향하여 (“→”) 그것을 ‘흡수’하는 ‘근원적 힘’ (“→”)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‘項’이다. 반대로 ‘괄호()’안의 “₁변형향 (₁助)”은 그 ‘흡수’에 ‘저항’하는 힘(←)을 역시 스스로 지니고 있으나 “₁근원 = 尊”의 흡수력 앞에 “괄호()”안에 머물어 그와 ‘完全合致’되어 ‘₁근원향’만이 있게 되는 “₁근원 = 尊”과 “₁변형 = 助”의 ‘₁근원적 짝’이다. 근원적 화살표시(“→”) 밑의 “₁근”은 그것을 가리킨다 (이것은 ‘非力學적 조직’에서의 “實物-/의미적 짝”에서의 ‘의미의 차이’를 표시하는 靜적/等方向적 화살표시(“→”)의 내용과 구별된다: *앞 해당항 참조). 다음으로 右(₂근)의 짝: “(尊)₂ ← 助₂”에서는 ‘左(₁근)’의 짝과는 逆方向으로 括호()안의 “₁변형적 (₁助)”이 “₂근원적 ₂助”로, “₁근원적 ₁尊”이 “₂변형적 (₂尊)”로 바뀌어 “₁근원의 짝”에서 보다 구체적인 ₂근원적 “₂助”와 “(₂尊)”의 ‘完全合致’ 즉 “₂근원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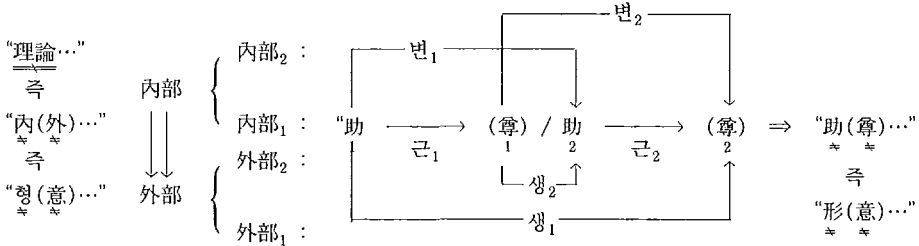
= 2助”만이 있게 되는 “2근원 = 2助”와 “2변형 = (2尊)”의 ‘2근원적 짝’이다. 이 ‘짝’을 연결하는 화살표시(“←”)가 1근원적 화살표시(“→”)와 ‘逆方向’으로 된 것은, ‘2근원적 짝’이 ‘1근원적 짝’과 直結된 ‘변형적(“←”) 짝’임을 표시한다(*이것도 역시 “非力學적 조직”에서의 靜적/等方向적 화살표시 “→”의 내용과 구별된다: *앞 해당항 참조).

‘셋째로’: “尊 → (助)/(尊) ← 助”에서, ‘左의 1근원적 짝’의 “1근원향 1尊”과 ‘右 2근원적 짝’의 “2변형향 (2尊)”를 연결하는 표시(“┌1변┐”)는 “左”와 “右”의 “1근원/“(2변형)”향의 ‘짝’을, 左의 “1변형향 (1助)”과 右의 “2근원향 2助”를 연결하는 표시(“└2변┘”)는 “左”와 “右”의 “(1변형)/“2근원”향의 짝을 각각 표시한다. 이들 ‘짝’의 성격은 각각 그에 先行한 ‘1内部적 짝’으로서의 “1근원적 짝(“→”)/“2근원적 짝(“←”)”에 對應하는 ‘2内部적 짝’ 즉 “1변형적 짝(“┌1변┐”)/“2변형적 짝(“└2변┘”)”이 된다(*이것도 역시 “非力學적 조직”에서의 靜-/等方向적 연결 표시 “┌┐”의 내용과 구별된다: *앞 해당항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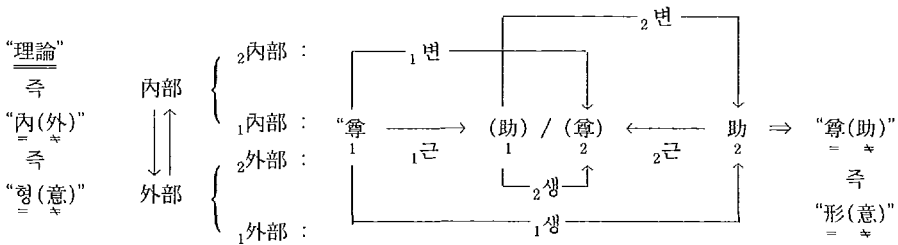
‘넷째로’: “尊 → (助)/(尊) ← 助”에서, “左”의 “1근원향(1尊)”과 “右”의 “2근원향 2助”의 ‘짝’의 표시(“┌1생↑”)와, “左”의 “1변형향 (1助)”과 “右”의 “2변형향 (2尊)”의 ‘짝’의 표시(“└2생↑”)는, 각각, 그에 先行한 “内部적 짝” 즉 “1内部적 짝/2内部적 짝”(*바로 위 “셋째” 설명 참조)에 대응하는 “外部적 짝” 즉 “1外部적 짝/2外部적 짝”이 된다(*이것도 역시 “非力學적 조직”에서의 靜-/等方向적 연결 표시 “┌┐↑”의 내용과 구별된다: *앞 해당항 참조).

**종합 결론: 이상에서 설명한 바를 종합하여 “力學적 尊待 → 助詞의 조직”/“非力學적 助詞 → 尊待의 조직”을 對比시켜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:

“(비 근원적)非力學적 助詞 → 尊特의 조직”



“(근원적)力學적 尊特 → 助詞의 조직”



*설명: 기본적으로 “非力學적 指示<형태> → 被指示<의미>의 조직”은 “力學적 조직”의 그것과 대립된다. “力學적 조직”에 있어서는 “指示<형태>”가 지닌 “被指示<의미>”를 “흡수하는 힘(→)” 즉 “等質化시키는 힘(=)”과 “被指示<의미>”가 지닌 “指示<형태>에/를 저항하는/異質化시키는 힘(←/≠)”의 ‘有限한 짝’ 즉 無限한 分析을 전제로 하는 物理-/實物-/意味적 테두리를 탈피한 ‘精神-/力學적 짝’ 즉 “指(被)”임에 반하여, “非力學적 조직”에 있어서는 다 같이 ‘物質/意味/實物’로서의 “指示”와 “被指示”의 表面-/可視적 “의미의 차이(≠)”에 역점을 둔 “指示 = 형태<잠재>”/“被指示 = 의미<구체·실현>”이라는 ‘오인/착각’과 ‘주장’의 ‘무한 반복(...)’의 짝 즉 “指(被)”이다.

위 그림의 左/右의 “非力學적 조직”/“力學적 조직”의 左端에 위치한 “內部 ⇨ 外部”/“內部 ⇐ 外部”는 각각 “形(意)…”/“形(意)”로서의 “理論”에 해당한다. “⇨” 표시는 위에서 말한 “無限 반복 (...)”의 基点 즉 “物質-/意味적 짝: 形(意)…”를 표시한다(오른 쪽 외곽의 “助(尊)…”도 같은 내용을 표시한다). 그와 반대로 “⇐” 표시는 “精神-/力學적 근원으로서의 “有限한 짝 形(意)”를 표시한다(오른 쪽 외곽의 “尊(助)”도 같은 내용임). 左에서 두번째의 “內部”와 “外部”의 “짝”은 ‘첫째의 근원적 理論’에 대한 ‘둘째의 변형적 理論’에 각각 해당한다. 그 ‘순서’는 “非力學적 조직”의 경우에는 “1 → 2/1 → 2”와 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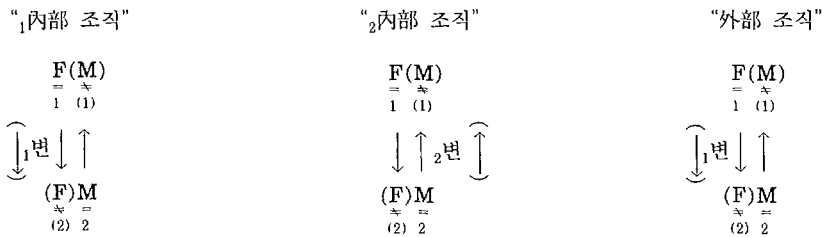
이 ‘等方向적’으로, “力學적 조직”의 경우에는 “1 → 2/1 ← 2”와 같이 ‘逆方向적’으로 읽는다. 그 각각의 “순서”에 대응되는 맨 안 쪽 그림의 “근원/변형/생성”은 각각 “첫째의 근원적 理論”과 “둘째의 변형적 理論”에 이은 결과 즉 “생성” 단계에 해당한다. 이것은 곧 “力學적 조직”에 있어서는 ‘첫째로’: 이 “그림”을 위와같은 순서로 읽은 “內部/外部”의 각각의 ‘작’에 모두 對應되게 그려 놓되, 단 그 ‘작’의 ‘첫째의 순서항’ 즉 ‘근원항’은 그 그림의 “₁변/₂변” 및 “₁생/₂생”를 모두 위의 그림의 화살표시 방향과 같이 ‘근원(→)’의 화살표시(↖ / ↗)로, 그 “작”의 ‘둘째의 순서항’ 즉 ‘변형항’은 ‘변형(←)’의 화살표시(↙ / ↘)로, ‘구별 표시하여 그려 놓을 수 있음’을 뜻하고, ‘둘째로’: 그 그림의 “₁변/₂변” 부분이다 그 “변형의 성격”을 구별 표시해야 함을 뜻한다. 그리고 이것은 “근원적-(左端의 “理論”)/변형적 理論(左에서 둘째의 “理論”)단계에도 모두 해당됨을 뜻한다. 즉 “근원적 理論”: “∅/(∅)”; “변형적 理論”: “₁∅/₂∅; (₂∅)/(₁∅) < *非力學적 조직”에서는: (∅₁)/(∅₂)로 표시 >; “생성 단계”: 옆과 같음. 그러나 “非力學적 조직”에 있어서는 이러한 ‘표시’는 오직 ‘物理-/意味적 테두리’안에서의 ‘차이(≠)’만을 표시할 뿐이므로 ‘화살 표시(→)’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고, 따라서 “力學적 조직”에서와 같은 ‘근원적 설명’은 불가능하다(*앞 “助詞/尊待法”의 그림 설명 참조). 그리고 ‘셋째로’: (力學적/非力學적) “內部項의 작”은 ‘內部적으로 직결된 項’이므로 그림상 “₁변·변₁/2변·변₂”의 화살표시의 바뀔에 관계없이 “₁생·생₁/2생·생₂”의 순서는 그대로임에 반하여, “外部項의 작”은 그 ‘外部性’ 때문에 그 “생”의 ‘먼저/나중’ 순서가 바뀐다. 그러나 그 ‘바뀔’은 “非力學적 조직”에 있어서는 ‘표시의 바뀔’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무런 뜻을 갖지 않는다. 위의 ‘근원적 작’으로서의 “근원적 理論” = (力學적) “形(意)"/(非力學적) “意(形)…” 단계에 이어 ‘변형적 작’으로서의 “변형적 理論” 단계는 위 “근원적 理論 단계”에서와는 다른 더 구체적 “변형의 성격”을 표시한다. 즉 “근원적 理論”: “1°(1°)”; “변형적 理論”: “1/(1); 2/(2)”; “생성 단계” = 옆과 같음. 그리고 위 “근원적 이론단계”와 다른 점은 그 “변형적 성격” 때문에 “內部적 작”의 “생성”의 순서가 바뀌어 안 쪽 (↖)이 ‘먼저’ 밖(↗)이 ‘나중’이 되고 (따라서 이 단계의 표기: “助(= 의미) → “尊(= 형태)”는 “근원 단계”의 “尊 → 助”와 ‘直結’된 ‘작’이라는 점에서 ‘尊적 助’ 즉 ‘主觀/형태적 助’와 ‘記述 의미적 尊’의 內容을 가진 ‘조직’이라고 할 수 있다). 그리고 그와 반대로 “外部적 작”은 그 ‘外部성’ 때문에 ‘밖’이 ‘먼저’ ‘안’이 “나중”이 된다 (따라서 이 단계의 표기: “尊(= 형태) → “助(= 의미)”에서 “尊” = “형태”는 “助” = “의미”적 성격을, “助” = “의미”는 더 구체적 성격을 띄게 되며, 이러한 內容에 力點을 둘 때는 “助”(= 의미) = “먼저” → “尊”(= 형태) = “나중”적 “조직”이라고 할 수 있다). “非力學적 조직”의 경우는 *앞의 “意味적 순서에 의한 助詞 → 尊待의 조직”에 해당되며, 그것과 바로 *위의 “형태 위주의 조직”이 결국 같은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.

彙(論)"이다. 그리고 이와 같은 '物質/意味적 分析'을 다시 둘로 역시 "物質/意味적"으로 分析하여 하나를 "근원적 理論" = "形態論", 다른 하나를 "변형적 理論" = "統辭(意味)論"이라고 '오인/착각'하고 또 그렇게 '주장'하는 "非力學적 조직"이다 (*앞 "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짝을 간접적으로 支持하는 적절한 언어적<물리적> 사실"項의 "설명" 참조). 여기서 "力學적 조직"과의 '比較'는 끝난다. "力學적 조직"은 이 "物質 = 意味" 단계를 '脫皮'하여 '첫째로': "근원적 理論 단계" = "근원적 1理論 및 2理論 = 一般(人稱)音韻論" → "변형적 理論 단계" = "一般形態論(1)/(2)" → "생성 단계" = "內部 統辭論(1)/(2)"와, '둘째로': "변형적 理論 단계" = "外部 統辭論(1)/(2)"의 "짝"으로 이루어진 "力學적 조직"이다.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"尊待"와 "助詞"의 "指示 → 被指示의 짝" 즉 "力學적 조직"은 "非力學적 조직"의 "物理/意味적 位置"가 아닌 위 "첫째"와 "둘째"의 "짝"으로 이루어진 '조직의 각 단계의 位置'에 자리잡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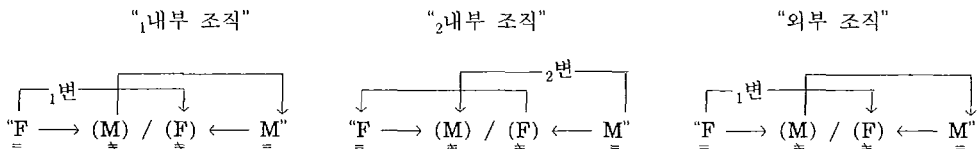
○ "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조직에서의 尊待와 助詞의 位置.

1) 理論 단계:

이 단계는 "형태 F = 尊"과 "意味 M = 助"의 "1內部 즉 1근적 짝"만이 있는 "근원 단계"이다. 앞으로의 설명의 편의상 "1근적 짝"을 "F(M)"과 같이 "上"에다 놓고 "2근적 짝"을 "(F)M"과 같이 "下"에 놓고 그 둘을 逆方向의 화살표시(↓↑)로 연결하고, "1변"은 그 화살표시의 "左"에 下降(↓)의 화살표시와 그 "1변의 성격"과 함께 표시하고, "2변"은 그 "右"에 上昇(↑)의 화살표시와 그 "2변의 성격"과 함께 표시하여 "형태 F"와 "의미 M"의 "짝" 즉 "力學적 조직"을 파악한다. 즉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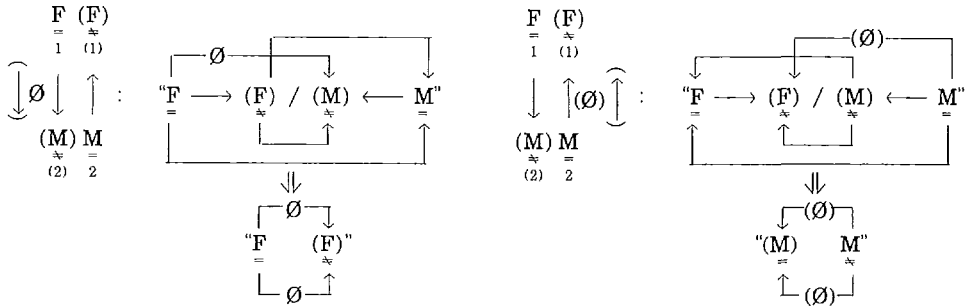


이어서 위에서 이미 사용한 '(橫적 對角線) 그림'을 "1변"의 경우는 그 '특성'의 표시와 '근원적(→)' "변" 및 "생"의 화살 방향표시로, "2변"의 경우는 그 '특성'의 표시와 '변형적(←)' "변" 및 "생"의 화살 방향 표시로 구분하여, 그에 각각 대응시킨다. 즉:



위 그림을 사용하여 “理論 단계”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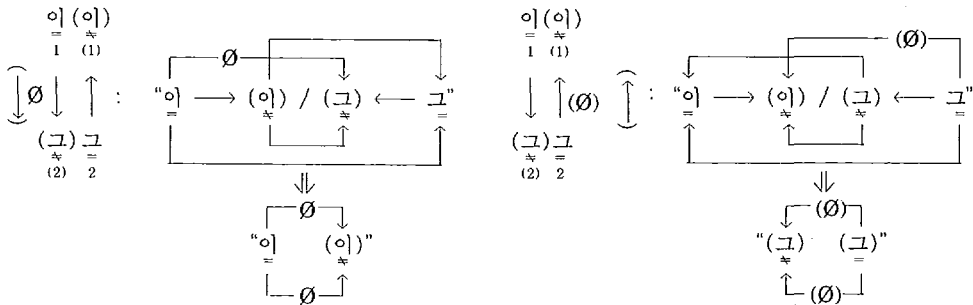
“₁內部적 조직” (₁內/₂內의 잠재적 변형 = 잠재 단계) “₂內部 조직”



“外部 조직 = ₁內部/₂內部的 구체적 변형 = 생성 단계” “F(M)”

즉 앞에서 “內部-/外部 조직”의 파악에 사용한 “F(M)/(F)M”의 짝에서 “변”을 “∅”/“(∅)”로 놓은 결과와 같다. 그런데 그 “짝”을 “F(F)/(M)M”으로 표시한것은 가장 ‘근원’이 되는 단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. 이 단계는 “指示”로서의 “理論”과 “被指示”로서의 “言語”가 “完全合致”된, “屈折적 너<₁의문 指示>/ (나)<₂의문 = 대답적 指示>” 또는 “屈折적 “이” <₁近稱적 指示>/ “그”<₂近稱 = 中稱적 指示>”만이 있는 “一般(人稱 또는 指示) 音韻論” 단계라고 할 수 있다. 구체적인 예를 그림에 배치하면:

“₁內部적 조직” (₁內/₂內의 잠재적 변형 = 잠재 단계) “₂內部적 조직”



“외부 조직 = ₁內部/₂內部的 구체적 변형 = 생성 단계” “이(그)”

*결론: 따라서 “尊待 = 形態”/“助詞 = 意味”의 “이론 단계”는 超言語적으로 “이(그)”라고 표기될 수 있다.

짝' 으로서의 "근원"과 "변형"에 해당되고, "左"의 "2근": "(F)" ← "M"의 "(F)"와 "M"/"右"의 "1근": "F" → "(M)"의 "F"와 "(M)"은 각각 *위 "(內部적) 짝: 근원/변형의" '(外部적) 짝' 으로서 "1생성" 및 "2생성", 즉 "생성"이 된다.

'둘째로': "이차적 변형 단계": 같은 "左/右 두 그림"에서 "左의 1변 1 \emptyset (\square^{\emptyset} ↓)과 2변(\square ↓)"/"右의 2변 2 \emptyset (\square^{\emptyset} ↓)와 1변(\square ↓)"에 의해서 "첫째의 근원 단계"의 "근원/변형/생성"의 '변형' 으로서의 "(內部적) 짝: 근원/변형"과 그 "(外部적) 짝: 생성"이 이룩되어 "첫째의 근원 단계"와 '內部적 짝'을 이룬다; '셋째로': "삼차적 생성 단계": 같은 "左/右 두 그림"에서 "左의 1생적 변형(\square ↑)과 2생적 변형(\square ↑)"/"右의 2생적 변형(\square ↑)과 1생적 변형(\square ↑)"에 의해서 위 "첫째의 근원 단계"와 "둘째의 변형 단계"의 "內部적 짝"의 "外部적 짝" 으로서의 '左: 1생성적 근원/변형'과 '2생성적 근원/변형 즉 생성'의 '짝' 및 '右: 2생적 근원/변형'과 '1생적 근원/변형'의 '짝'이 각각 이루어 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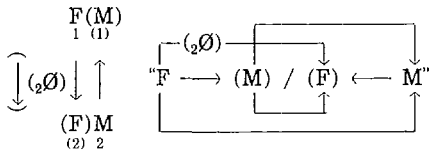
그러므로 "尊 = F"/"助 = M"으로 "一般形態論(1)/(2)"와 그 각각의 단계를 표기하면 그것이 곧 '非可視적'인 "尊待"와 "助詞"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. 여기서는 '一般形態論의 同形の 조직'을 일일이 설명할 자리가 아니므로 필자가 작성한 "現代韓國語의 一般形態論의 同形の 조직"에 미루기로 한다.¹⁾ 한 예를 들어 "一般形態論(1)"의 "動詞人稱" 단계 안의 "動詞人稱" 단계 ("-아, -게, 지, -고<도, 는, 만>" 및 "-기<도, 는, 만>" 등으로 이루어지는 助動詞에 助詞가 붙을 경우)는 "助詞 = M적 尊待 = F 즉 動詞人稱"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, "代名詞人稱" 단계의 屈折人稱 단계(<指示적> "이, 그, 저"로 시작되는 "이, 가, 을, 를" 助詞단계)는 "屈折·尊待 = F적 즉 指示적 助詞" 단계, "動詞人稱" 단계(記述동사 "있-" /主觀동사 "이-"의 '짝' 으로서 시작되는 단계)는 "助詞 = M적 尊待 = F 즉 동사 人稱" 단계, 끝으로 "代名詞적 人稱" 단계("나/너, 그"로 시작되는 단계)는 "(구체적)尊待 = F적 助詞 = M 즉 代名詞 人稱" 단계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 (*一般形態論(2)는 (1)과 逆方向이다. *바로 위의 "(1)/(2)" 단계의 설명 참조: 또 *뒤의 "一般形態論(1)/(2)의 同形の 조직" 참조).

3) 內部 統辭論(1)/(2) 단계:

이 단계는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:

1) 近刊: 朴亨達 '理論言語學의 比較에 관하여: 서울大學校 出版部' 중 "形態와 意味의 同形的(非恣意的)分析理論과 그 適用/記號의 非恣意性和 文法體系" 참조.

“內部統辭論(1)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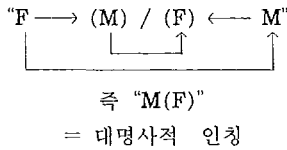
근원 변형

“F → (M) / (F) ← M” “F → (M) / (F) ← M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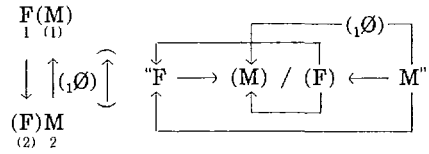
즉 “M” 즉 “(F)”

= 굴절 인칭 = 동사적 인칭

생성



“內部統辭論(2)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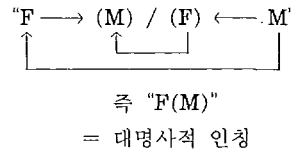
근원 변형

“F → (M) / (F) ← M” “F → (M) / (F) ← M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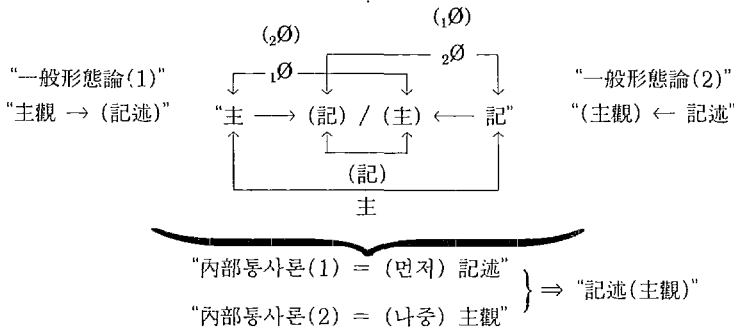
즉 “F” 즉 “(M)”

= 굴절 인칭 = 동사적 인칭

생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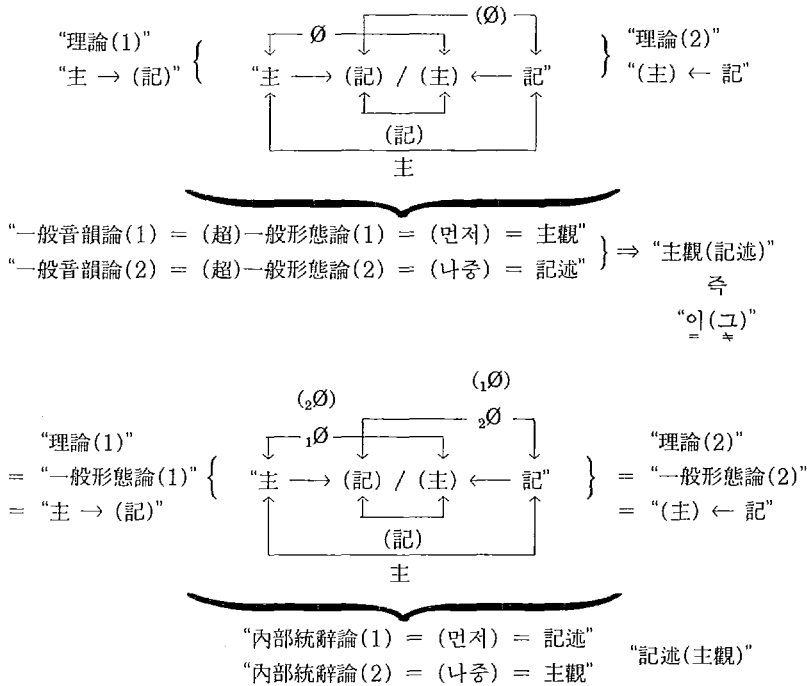


위 “內部통사론(1)/(2)”의 ‘작’은, 마치 “一般音韻論(1)/(2)”의 ‘작’이 “理論(1)/(2)”의 작의 (직접적) ‘生成적 작’인 것과 마찬가지로,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의 작의 ‘생성적 작’이다. 이것을 “F = 形態 = 主觀 = (1) / “M = 意味 = 記述 = (2)”로 각각 超言語적으로 구분 표기하고, “변형” 및 “생성”의 화살표(→/←)는 (↔)와 같이 하나의線上에, 그리고 “변형의 성격”은 “밑 = 內部 “ = “먼저” / “위 = 外部 = 나중”으로 표기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면:



“생성 단계”의 “안쪽(↕↕) = 記述”이 ‘먼저’, “밖(↕↕) = 主觀”이 ‘나중’으로 그 ‘순서’가 “一般形態論(1)/(2)” 단계의 순서의 逆으로 바뀌었다. 이것은 *앞의 “理論(1)/(2)” 단계의 “(직접적) 생성적 작”으로서의 “主觀(記述)” = “이(그)” = “一般음운론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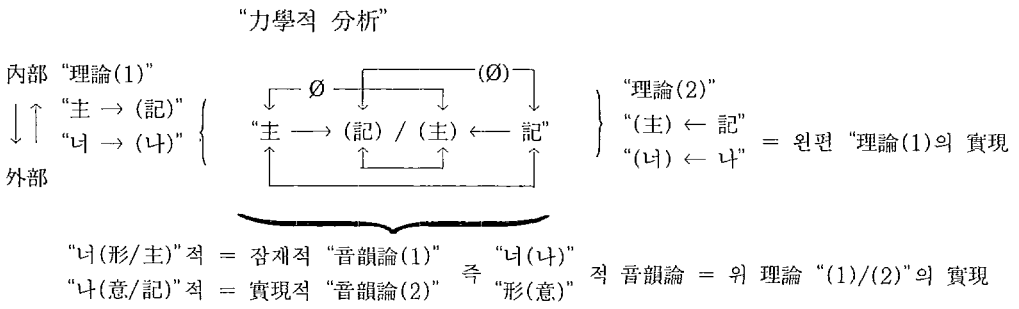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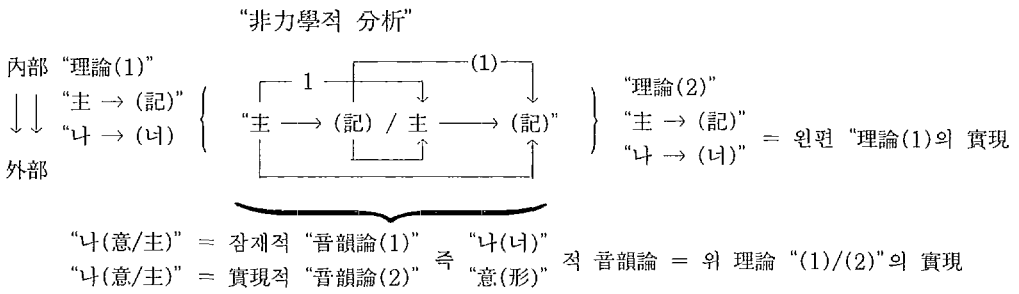
/(2)” = “(超)一般形態論(1)/(2)” 단계에 대하여, “內部統辭論(1)/(2)” 단계는 그것의 “(간접적) 생성 단계”임을 말한다 (*그 설명은 그림에 있음). 이것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면 :



이 “內部統辭論(1)/(2)”를 다시 “助詞(= 意味 = 記述)/“尊待(= 形態 = 主觀)”로 표기하면 “助(尊)”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. 이것은 “潛在文”으로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 “尊(助)” 즉 “形(意)”와 ‘直結된 짝’으로서의 “助(尊)” 즉 “意(形)”이다. 즉 “潛在적 潛在文”에 대한 “潛在적 구체문” 즉 “말이 되는 文”이다. 바꿔 말하면 “말이 아직 안된 상태”로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와 구별되는 “말이 된다는 구체적 특징”을 지닌 尊待(= 主觀 = 形態 F)적 “助詞(= 記述 = 意味 M) 즉 (F)M = (尊)助” 즉 “말이 되는 潛在적 尊待(= 形態 = 主觀文)”라고 할 수 있다. 이것을 *앞의 “非力學的 助詞(= 指示) → 尊待(= 被指示)의 조직”에서 그 조직을 지배하는 “理論”으로서의 “意味적 순서: 主觀 → 記述 → 행위”와 비교할 때, 이 “力學的 조직” 즉 “內部統辭論(1)/(2)”는 “非力學的 조직의 理論의 순서” 즉 ‘구체적 행위 중심’의 순서를 ‘脫皮’ 내지 ‘제거/배제’ 한, “말이 되는 潛在적 主觀文”이라고 할 수 있다. 그 “主觀文”은 또한 “非力學的 조직”에서의 “助詞/“尊待”의 “意味 = 動詞 = 零(∅)형(= ∅ 助詞/∅尊待) 및 全動詞(特殊 助詞/極尊待)” 중심의 “主(主觀) → 目(記述) → 動(행위)”의 ‘순서’에 따르는 “非力學的 分析: “主語₂ (-이/-가)/主體 尊待₂(-시); 目的語(-을/를)/目的語·客體 존재(-습); 全動詞적 目的語

(-도·는·만)/極·全動詞적 尊待(-니)가 아니라, 그러한 分析을 ‘脫皮’ 내지 ‘제거/배제’ 한 分析 즉 “非力學적 의미상의 순서”: “主觀 → 記述 → 행위” 중 “主觀”에 해당하
 는: “(主觀적)” “좋/싫”, “-이(다)” 및 “(記述적)” “있(다)”와 “(主觀적)” “-이/-가” 및
 “(記述적)” “-시”의 ‘짝’: “主-目(= 主₂)-이/가 좋/싫~” 및 “主-目(= 主₂)-이-시~”
 를 ‘否認’ 하는 “力學적 分析”: “屈折인칭(-어/아” + “-이/-가” 및 “-시”) → 動詞적 人
 稱(-이/-가” + “좋·싫” 및 “-이” + “시”) → 代名詞적 인칭(“₁대명사 + ₂代名詞” +
 “-이/-가” 및 “-시”)” 이다.

** 종합 결론: 이 “非力學적 分析”과 “力學적 分析”을, “內部 統辭論”²⁾에서 설명한
 ‘基本原理’²⁾를 또 다시 되풀이한 바로 *위의 “理論 → 一般 音韻論 → 一般 形態論 →
 內部 統辭論”의 “力學적 조직”에 이어, 이들을 다시 종합하고 끝으로 “外部 統辭論”(“非
 力學적”에서는 “意味 統辭論” <*아래 참조>에 이르기까지의 “非力學적 分析”과 “力學적
 分析”을 그림으로 對比시켜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(“主觀”/“記述”은 “非力學”에서는 “나
 (= 의미)"/“너(= 형태)”: “力學”에서는 “너(= 형태)"/“나(= 의미)”에 각각 해당하
 다: “그림”은 “근원/변형/생성”을 ‘하나’의 그림으로 나타낸다):



2) ‘非力學적 조직’에서는 “形態 統辭論” <*아래 참조>: “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”의 짝을 간접적
 으로 支持하는 “적절한 언어적<= 물리적> 사실”: “助詞와 尊待法”의 “非力學적 조직”의 “그
 림” 및 “설명” 項/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”의 조직과 대립되는 “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”의 조
 직”의 “종합 결론” 項의 “理論” 단계 이하의 “그림”과 그 “설명” 項 및 “非力學적/力學적-
 (근원-/변형-/생성적) 助詞 → 尊待/尊待 → 助詞의 조직”의 “그림” 참조.